

2021 새해 새 설계

박우량 신안군수

“새로운 소득원 발굴, 고소득 ‘천사 섬’ 만들 것”



“새해에는 주민소득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해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가는 길이 더 기대되는 세상을 열겠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0일 “지난해에는 3개의 대형 태풍과 긴 장마, 코로나19까지 겹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너무나 힘든 한 해였다”며 “힘든 한 해를 잘 견뎌준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박 군수는 올해 균형 최우선 목표를 주민소득 증대로 삼아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실제 민선 7기 들어 육성한 새우양식사업이 지난해 처음으로 600억원의 생산고를 올리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 올해는 고부가가치 개체 굴양식을 10만평 이상 규모로 키워 60억원을 목표로 하고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 커피, 레드 망고 임대농장 2.6ha를 조성해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한다.

신안 해상풍력의 가장 큰 숙제였던 어민들과의

망고 등 아열대 작물 농장 조성

1인당 600만원 에너지연금 지원

완성 못한 12개 뮤지엄 착공

상생협약 체결로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만큼 세계 최대 단일규모 8.2GW 해상풍력과 1.8GW 태양광개발사업을 통해 주민 1인당 연간 600여만원의 연금형식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 군수는 “중동의 오일은 바다가 나오 신안의 바깥은 영원하다”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해인 만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년을 내다보는 핵심사업으로 숲이 울창하고 꽃이 만발한 사계절 꽃피는 천사(1004)의 섬 조성을 꼽았다.

지도 라일락공원, 비금 해당화공원, 하의 한반도 평화의 숲, 신의 춘란공원, 암태 암석공원, 장

2021년 주요 사업

- ▲개체 굴·아열대 작물 등 새 소득원 개발
- ▲주민 1인당 연 600만원 에너지연금 지원
- ▲섬마다 숲·꽃 가꿔 ‘1004섬 지방정원’ 지정
- ▲교통체증 극심 압해도로 확포장 공사
- ▲신안군 종합가족센터 건립
- ▲망콩·꾸지뽕 이용 특화음식 개발
- ▲12개 뮤지엄 모두 착공

산 화이트공원 등 큰 섬 6곳과 작은 섬 13곳의 ‘1004섬 공원과 사업’을 추진하고, 섬마다 특색 있는 숲과 꽃을 가꿔 ‘1004섬 지방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는다.

주민들의 종합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방문간호사를 더욱 확대하고 다문화·미혼모·한 부모 및 보훈 가족 등을 위해 압해읍에 100억원 이상을 들여서 신안군 종합 가족센터를 건립한다. 어르신

의 유일한 휴식공간과 소통의 장소인 경로당의 성능이 떨어진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노후한 경로당은 신속도 함께 진행해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천사대교 개통 이후 관광객 급증에 따른 부족한 숙박시설과 식당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압해읍 학교리에서 천사대교 입구까지 6km 구간도 확장 포장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에 선정된 1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망콩·꾸지뽕을 이용한 특화음식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신안군의 품격으로 떠오른 12개의 뮤지엄이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자리잡고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시설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아직 완성하지 못한 12개의 뮤지엄을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 모두 시작할 예정이다.

박 군수는 “미래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 기대되는 세상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군, 대불산단 근로자들 코로나19 전수검사 한다

1만5500명 선제 대응 거주 외국인들도 포함

영암군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 증가함에 따라 대불국가산단 근로자 등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밀폐·밀접·밀집에 노출되는 대불산단 근로자

와 대중교통, 요양병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1일부터 13일까지 대불산단 등 6곳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외국인과 내국인 등 전체 근로자 1만5500여명을 대상으로 검사한다.

특히 이번 검사는 신속항원키트를 이용한 검사로 30분내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 이상자에 대해서는 PCR검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또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점심 및 저녁시간 대를 활용해 시행할 예정이다.

대불산단 외국인 근로자 2800여명의 검사가 끝나는 대로 3200여명의 영암지역의 모든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종사자(택시 및 버스 운송업자) 175명도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실시한다.

요양·정신병원 관련 시설 15곳의 입소자 400

명과 종사자는 주 1회, 취약시설 35개소 820명의 종사자 등은 주 2회씩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전남에서도 지역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수검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식품·반가공 육성사업 대상자 해남 맛샘 영농조합법인 선정

사업비 22억8000만원 확보

해남군은 ‘맛샘 영농조합법인’이 2021년 식품소재·반가공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소재·반가공 산업은 원재료인 농축임산물을 제외하고 완제품의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 및 첨가물을 생산하는 식품 산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은 육천농협 간마를 품목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비 22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맛샘 영농조합법인은 고구마를 소재로 한 아이스 군고구마 말랭이, 페이스트 등 반가공 상태의 식품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급속냉동·냉장 시설, 세척·건조·오븐 등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연간 750t의 반가공 제품을 생산해온 중견기업으로 지난해 3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고구마 생산조직과 연계를 통한 사업 확장과 함께 연간 2000t의 반가공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가공 설비를 갖춘다.

가정 간편식 및 대기업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등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군 대표 농산물인 고구마, 마늘 등의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선정돼 의미가 크다”며 “식품 반가공 분야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사업 선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수산물 수출브랜드 대전’서 완도 기업 대상·은상

해청정·완도사랑S&F 수상

완도지역 수산물 수출기업 2곳이 ‘수산물 수출유공자 브랜드 대전’에서 대상과 은상을 수상했다.

완도군은 해양수산부의 ‘2020 수산물 수출유공자 브랜드대전’에서 완도 수출기업인 ㈜해청정과 ㈜완도사랑S&F가 각각 대상과 은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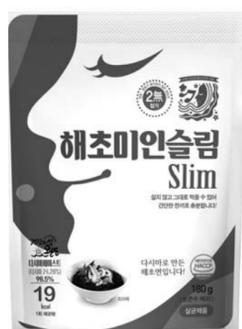
2017년 시작된 ‘수산물 수출브랜드 대전’은 자체 전문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우수한 상품을 선정한다.

대상을 받은 해청정의 ‘해조미인’은 다시마국수로 해외에서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조류를 활용한 저칼로리 제품이다.

완도산 다시마를 활용한 이 제품은 코로나19로 수출 위기 속에서도 지난 9월 완도군 화상 수출상담회에 참가해 말레이시아 라얌에 제품을 수출하며 첫 수출 실적을 올렸다. 11월에는 부산국제수산물엑스포 수출상담회를 통해 독일 수출길에 오르는 등 다시마국수는 건강식을 선호하는 전 세계 젊은 층에 인기를 끌고 있다.

은상을 수상한 완도사랑S&F의 ‘바다는 웰빙이다’는 브랜드처럼 정정바다에서 생산한 수산물로 만든 전복가공식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대전에서 완도산 참전복이 들어간 전복볶음밥 3종(해물, 김치, 톳)은 가성비가 탁월한 가정 간편식으로 평가단의 주목을 받았다. 전복 볶음밥은 지난 9월 미국에서 바이어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수입 의사를 밝힌 후 현재까지 원활하게 수출이



대상을 수상한 (주)해청정의 ‘다시마 국수’(왼쪽)와 은상을 받은 완도사랑S&F의 전복가공식품.

진행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수출 기업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올해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



출업체와 어업인들의 노력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완도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페이지,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ai.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과 상담]